

## 이슈브리프

No. 2025-17

##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노동당 인사개편 평가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2025-06-20

이 글은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4년여 기간 북한의 노동당 간부 인사개편을 종합 분석한 글로,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및 관리 기구인 당 정치국과 비서국 구성원 부침 분석을 통해 김정은의 용인술, 체제 관리 방식의 특징을 평가하고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sup>1</sup> 지난 4년간 북한 노동당은 6개월 주기로 당 전원회의를 통해 매년 중폭의 인사 교체를 단행했는데, 교체가 빈번한 직책은 정치국 위원급에서는 군정·군수비서와 경제비서로 예하 조직 지휘 소홀 및 경제관리 실패가 귀책 사유였다. 정치국 후보위원급에서는 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전·간부·규율부서 책임 당료 교체가 빈번했다. 중앙당 외부에서의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소수의 내각 전문 관료와 공안 기관 책임자에게 열려있을 뿐, 내부 승진과 정치국과 비서국 직위 검직이 일반화된 폐쇄성을 보였다. 여기에는 친소 관계에 따라 인물을 등용하는 성향이 있는 김정은의 ‘낮가림’도 작용했다.

이와 같은 인사개편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 용인술의 특징은 조용원 조직비서 등 핵심 그룹 중심의 폐쇄적 중앙당 관리, 전문성보다 충실성 중심의 권력 엘리트 충원, 정책 개발보다는 조정·통제 기능 활성화, 김정은의 선호에 따른 회전문 인사 빈번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 구조는 선당정치가 정착되고 당의 조정·통제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어 김정은의 권위는 제고되어 유일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한마디로 다소 과장한다면 김정은은 조용원 덕분에 핵심사일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수령의 권위 격상과 당의 통제 강화는 역기능도 뒤따랐다. 수령 독재의 외양상 견고성과는 달리 권력층 내 정책 갈등이 점증했고 간부들의 패배주의는 극심해졌다. 김정은의 정책 편향과 및 독단성이 증대되면서 체제의 활력은 고갈되었다. 북한 지도부가 통제에 치중하면서 비전 제시,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부여, 정책 애로 요인 해소 등 정책 성과 진작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 간부들의 패배주의에 따른 정책 부진은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비판할 지경에 이르렀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간부들이 “당정책을 비속화하거나 왜곡 집행한다”, “책무 수행에 빠심을 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정책을 조롱하고 애써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면한 과업은 아름답거나 준비된 일군이 적다”고 한 점에서 9차 당대회 계기로 중간층 대상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핵심 간부층은 여전히 충실성을 기준으로 충원되고, 군부 인물 등용 확대도 예상된다. 또 연초 조용원의 근신 처분으로 볼 때 조용원 견제 인물 등용과 김여정의 정치국 복귀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당 인사개편이 암시하는 중장기적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 전망은 김정은의 당 중심 체제가 김정일식 측근 정치, 선군정치로 변질하면서 권력층 균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속성 변화를 유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한미동맹 이간 책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 노동당 중앙당 인사개편

### 1. 당 중앙위원 교체

먼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교체 상황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으로 139명, 후보위원으로 111을 선출해 총 250명으로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8차 당대회 이후 6차례의 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은 55명(40%), 후보위원은 79명(71%)을 교체했다([표 1] 참고). 전체 당 중앙위원 250명 중 134명을 교체(54%)해 절반 이상의 신진대사가 있었다.

**[표 1] 8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연도별 교체 인원수 (필자 정리)**

시기	변동 내용	시기	변동 내용
2021.01 당대회	위원 139 명 후보위원 111 명	2021.02 전원회의	후보위원 → 위원 보선 3 명 후보위원으로 보선 5 명
2021.12 전원회의	위원 보선 21 명 후보위원 보선 22 명	2022.12 전원회의	위원 17 명 후보위원 26 명 보선
2023.06 전원회의	위원 4 명 후보위원 3 명 보선	2024.06 전원회의	위원 4 명 후보위원 12 명 보선
2024.12 전원회의	위원 6 명 후보위원 11 명 보선	누계	위원 55 명 변동(40%) 후보위원 79 명 변동(71%)

노동당 중앙위원은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이다. 지난 4년 동안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교체율 54%는 8차 당대회 때의 교체율 66%(250명 중 166명 교체, 84명 유임)에는 미치지 않으나 절반 이상을 교체한 큰 폭의 변동이다.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중앙 실무 간부와 지방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령에 따른 퇴진도 있었겠지만, 당성이나 정책집행 부진의 문제로 실무 간부들의 변동도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당 정치국 개편

### 1)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

북한은 2021년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김정은(당 총비서),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당중앙위 비서), 김덕훈(내각총리), 조용원(당중앙위 비서) 등 5명을 선출했다. 당시에 박봉주(전 내각 총리, 경제 총괄 당 부위원장)가 탈락했고,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용원이 두 단계 올라가 상무위원으로 등용되었다.<sup>2</sup>

정치국 상무위원은 8차 당대회 이후 위 5인 체제를 유지하다가 세 차례 변동이 있었다. 2022년 한때 군부 인물인 리병철<sup>3</sup>과 박정천<sup>4</sup> 둘 다 상무위원을 겸직해 6인 체제가 되었다가 박정천이 소환된 사례가 있고, 2024년 12월 내각 총리 교체(김덕훈 → 박태성)로 상무위원의 변동이 있었으며, 2025년 3월 리병철의 은퇴(군수정책담당 총고문)가 확인되어 상무위원은 4인으로 줄어들었다.<sup>5</sup> 2025년 6월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총비서 김정은, 내각 총리 박태성,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로 구성된다. 이들 간의 내부 서열을 보면 북한은 형식상으로는 김정은 다음에 내각 총리를 호명해 예우해 준다.

8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회 운영을 평가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5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용원이 실권을 장악하고, 최룡해는 다소 소외된 모습이며, 리병철·박정천이 군부 1인 자 자리를 놓고 김정은의 신임을 다투는 정도의 갈등을 보였다. 상무위원들은 각각 당무,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군사 또는 군수 업무를 책임지는 인물들로서, 김정은이 비교적 예우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간혹 별도로 소집되기도 하나, 상무위원회에서의 집체적 토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을 주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당 조직비서의 위상, 김정은이 불참한 정치국 회의에서 조용원이 사회를 본 사례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사실상 권력 서열 2위는 자는 조용원인 것으로 평가된다.

## 2) 당 정치국 위원 변동

북한은 8차 당대회 때 정치국을 상무위원 5명, 위원 14명, 후보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정치국을 총원 30명 규모로 유지하면서 직위별 인원수를 조정했다. 김정은과의 친소 관계 혹은 분야별 당무의 중요도 변화에 따라 상무위원 숫자는 5명으로 고정하면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규모를 조정했다.<sup>6</sup>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연직 정치국 위원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을 제외하고 8차 당대

회에서 선출한 정치국 위원은 박태성(당중앙위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 박정천(총참모장), 정상학(당중앙위 비서),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겸 근로단체부장), 김두일(당중앙위 비서 겸 경제부장), 최상건(당중앙위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김재룡(당 조직지도부장), 오일정(당 군정지도부장), 김영철(당 통일전선부장), 오수용(제2경제위원장), 권영진(총정치국장), 김정관(국방상),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등 14명이다. 당시 박봉주, 최휘, 김수길, 최부일이 탈락했고, 조용원, 정상학, 김두일, 최상건, 오일정, 권영진, 김정관, 리영길이 정치국 위원에 추가로 보선되었다.

2025년 6월 현재 정치국 위원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제외하고, 12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비서 6명, 총참모장·국방상·총정치국장 등 군부 책임자 3명, 부총리 일부와 외무상 등 내각에서 3명을 등용했다. 당비서 6명은 박정천, 리일환, 리히용, 김덕훈, 조춘룡, 최동명이고, 군 지휘부 3명은 노광철, 리영길, 정경택이며, 내각 3명은 부총리 박정근·김정관, 외무상 최선희이다.<sup>7</sup>

8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보선은 2024년 6월 전원회의를 제외하고 매번 전원회의 때마다 단행되었다. 예외적으로 2021년 6월 및 9월 정치국 회의에서도 정치국 구성원을 교체한 사례도 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8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위원 19명, 후보위원 16명을 보설했다. 그중에는 박정천, 오수용, 김영철처럼 소환·보선이 반복된 인물도 있지만, 반복 사례를 고려해도 거의 전부가 인사조치를 경험한 점에서 이들의 직위 불안정성이 확인된다.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의 직위 불안정성은 정책 관리나 충성도 미흡보다는 김정은 유일 지배를 위한 용인술이나 지도자의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 전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 정치국에서 비교적 장기간 생존한 인물군은 조용원을 비롯해 박태성, 김덕훈, 리일환, 김재룡, 박정천, 리영길, 정경택이다.<sup>8</sup> 이들과 함께 주목되는 신진 부상 인물군을 보면, 정치국 내에서 부상한 인물로는 조춘룡(군수비서), 리히용(간부비서), 최동명(과학교육비서), 최선희(외무상)가 있으며, 특히 리히용의 급부상이 주목된다. 조용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치국

위원 교체를 평가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은 정치국 위원 12명을 당료 4명, 군부 5명(군정비서와 군수비서를 軍 인물로 분류), 내각 인물 3명으로 구성해 8차 당대회 때보다 당료보다 군과 내각의 전문 관료 등용 비중을 늘렸다. 당료 출신 중에는 김덕훈, 김재룡, 리히용 등 지방당 출신이 다수 포진해 조용원이 중앙무대에 연고가 적은 이들을 주변에 배치해 중앙당을 함께 장악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용원은 김재룡을 내각 총리, 조직부장, 중앙검사위원장, 규율조사부장, 간부부장에 보임해 와일드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김덕훈 대신 박태성을 신임 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했다. 그 배경은 박태성 발탁보다 김덕훈의 당 경제 비서 중용에 있다고 본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5개년 경제계획을 결산하고 차기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제를 김덕훈이 맡을 것이다. 실권자로서 조용원이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당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정책 관리 성적을 어떻게 포장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측근인 경제관리 전문가 김덕훈을 당으로 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김정은은 잦은 정치국 위원 인사카드를 부하들 통제 및 실정 전가에 활용했고, 이를 활용해 조용원은 자신과 친밀한 인물을 측면 지원이 필요한 포스트에 배치하고 내각 전문 관료의 정치국 영입을 확대(김정은에게 건의)해 효율적인 중앙당 관리에 활용했다. 좀 더 단순화하면 김정은은 다른 일로 바빴고, 집안 살림살이는 조용원에게 맡기면서 간혹 한마디 하는 방식으로 정치국을 운용했다고 본다.

### 3) 당 정치국 후보위원 변동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박태덕(당시 당규율조사부장), 박명순(당경공업부장), 허철만(당간부부장), 리철만(당농업부장), 김형식(당법무부장),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환(평양시당 책임비서),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내각 부총리), 전현철(당 경제정책실장), 리선권(외무상) 11명을 선거했다. 종전 후보위원 중 김형준(전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여정(전 제1부부장, 부부장으로 강등), 김일철(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의 탈락이 확인되었다.

2025년 5월 현재 정치국 후보위원은 김재룡(규율조사부장), 김형식(법무부장), 주창일(선전선동부장), 주철규(농업부장), 한광상(경공업부장), 양승호(부총리), 김성남(국제부장), 리창대(국가보위상), 김영철(10국 고문), 방두섭(사회안전상), 리철만(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철원(중앙검찰소장) 13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중앙당 중요 부서 부장 7명(당 10국은 고문인 김영철이 후보위원), 평양시당 책임비서, 보위성·안정성·검찰소 등 공안 책임자 3명, 내각 부총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국 위원이 정책 결정 주도 그룹이라면,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후보위원들은 각 부문의 정책집행 혹은 관리 책임자 집단이다. 따라서 정치국 후보위원은 각 분야 인물로 골고루 분포된 점이 특징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북한 권력 서열 20~30위에 위치해 핵심 권력층에 해당한다. 김여정도 후보위원이었다가 ‘쫓겨난’ 자리다. 그러나 권력 핵심의 주변부 자리라서 전통적인 권력기관은 ‘강등’으로, 전문 관료 집단은 ‘승진’로 해석이 다른 자리이기도 하다.

### 3. 당 비서국 개편

#### 1) 당 비서국 직제·인사 변동

먼저 비서국 직제 변동이다. 당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대남비서와 국제비서를 폐지했고, 그 대신 중앙검사위원회장을 겸직하는 ‘검사’ 비서를 신설했다. 2023년 8월 무렵 박정천이 김정운을 동행하면서 ‘군정지도부장’으로 불렸고, 그해 12월 박정천이 당비서로 선출된 점에서 ‘군정지도비서’도 신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군사 비서는 군정지도비서와 군수담 당비서로 이원화된다. 당중앙검사위원장이 당비서직을 겸직하는 관례는 정상학·김재룡까지 이어지다가, 2024년 12월 당비서 겸 간부부장 리히용의 당중앙검사위원장 겸직으로 중단되었고, 그 대신 ‘간부부장’이 비서급으로 격상되었다.

한편 당 전문부서 개편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sup>9</sup> 2020년 당 군정지도부, 당 법무부 등 군부와 사법기관 통제 부서를 증설한 데 이어, 2021년 당대회 때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 규율조사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앙당의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8기 1차 당 전원회의에서 당내 ‘규율감독체계 강화’ 문제를 토의하면서 김정은이 “당 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규율을 세우고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면 규율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sup> 중앙당의 통제 기능 강화 이유를 ‘당정책 이행 규율 확립’과 간부들의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 단속’을 함께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간부들의 ‘보신주의·패배주의’ 극복에 있다고 본다.

다음은 비서국 인물 변동이다. 먼저 제8차 당대회 때 비서국 구성을 보면, 당비서(‘당 부위원장’에서 ‘당비서’로 개칭)는 조용원(신규 인물, 조직), 박태성(선전), 리병철(군수), 정상학(신규, 검사),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신규, 경제), 최상건(신규, 과학교육) 7명으로 구성했다. 종전 당 부위원장들 중에 박봉주, 최휘(선전), 오수용(제2경제), 김영철(대남), 김형준(국제)이 ‘당비서’에서 제외됐다. 당시 ‘당 부장’(부장급)으로 김재룡(조직), 오일정(군정지도),<sup>11</sup> 박태덕(규율조사), 김성남(국제), 허철만(간부), 김형식(법무), 박명순(경공업), 리철만(농업), 리두성, 강순남, 김영철(통전), 김세복, 박정남, 최휘(선전 추정), 김용수, 박영민(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16명)했다.

8차 당대회 이후 당비서 변동 상황이다. 조직비서는 조용원이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직비서는 김정은이 2017년에 최룡해를 임명했고, 2019년 4월 리만건으로 교체했다. 리만건이 2020년 김일성고급당학교 부정부패 사건으로 8개월 만에 해임되어 조직비서는 공석이였다가<sup>12</sup> 2021년 1월 조용원이 발탁되었다. 경제비서는 8차 당대회 이후 6번 바뀌었다. 2021년 1월 김두일 → 2021년 2월 오수용 → 2022년 6월 전현철 → 2023년 6월 오수용 → 2023년 12월 전현철 → 2024년 12월 김덕훈 순으로 맡았다.<sup>13</sup> 경제정책 추진의 난맥상을 보여주며, 김두일·전현철 문책 인사 이후 오수용(1944년생)의 땀질 보임이 반복되었다.

2025년 5월 현재 중앙당 비서는 조용원(겸 조직부장), 리히용(겸 간부부장, 당 중앙검사위원장), 리일환<sup>14</sup>, 김덕훈(겸 경제부장), 최동명(겸 과학교육부장), 박정천(겸 군정지도부장), 조춘룡(겸 군수공업부장) 7인이다. 이들 중 조용원은 상무위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국 위원이다. 그중 조용원과 리일환이 8차 당대회 이후 지속 비서직을 유지해 왔다. 다만, 리일환은 2025년 연초에 잠적해 신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정천은 2021년 9월 당비서에 등용되었으나 1년간(2022.12~2023.1) ‘부대 훈련 소홀’로 정직처분 받았다. 조춘룡은 2023년 12월에, 리히용·김덕훈·최동명은 2024년 12월에 비서에 등용되어, 고참인 조용원의 비서국 장악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재 운용 중인 당 비서국 전문부서(부장)는 조직지도부(조용원), 선전선동부(주창일), 간부부(리히용), 규율조사부(김재룡), 법무부(김형식), 군정지도부(박정천), 군수공업부(조춘룡), 민방위부(오일정), 경제부(김덕훈), 과학교육부(최동명), 농업부(주철규), 경공업부(한광상), 재정경리부(김용수), 39호실(신룡만), 근로단체부(김정순), 총무부(김봉철), 국제부(김성남), 10국(통전부, 리선권), 당 역사연구소장(리혜정), 문서정리실(박정남) 등 20개 부서이다.<sup>15</sup>

## 2) 당 비서국 운영 평가

당 비서국 편제를 보면 당 사업관리(조직·선전·간부), 경제, 과학교육, 군사와 군수 등 군사를 포함한 내치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군사와 군수 정책 책임자를 비서국에 포함한 것은 그 부문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체제 전반 관리 차원에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체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대와 군수를 당적 통제 밖에 위치시키면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와 같은 폐단이 대두될 수 있다. 비서국이 전반적인 당 생활지도, 사상 통제로 당 위원회가 있는 전 기관을 망라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은 자제한다고 본다. 군사·군수, 대외·대남 정책, 그리고 공안기관 업무는 당 비서국(조용원)이 적극적으로 조정·통제하기 보다는 김정은이 이들 특수 단위를 직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 비서국은 전반적으로 내치 관리를 주 기능으로 한다. 당 생활지도·감찰·규율 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사업하는 체계를 갖춰 조용원이 김정은을 대리해 조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 또 당비서는 정치국 위원을 겸직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분야별 정책 관리 책임도 맡는 핵심적 위치에 있어 김정은과 함께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그룹으로 평가된다. 당비서로서 부장을 겸직하는 부문은 조직, 간부, 경제, 과학교육, 군정, 군수 등 6개 부문이다. 당 선전 부문이 비서(리일환)와 부장(주창일)으로 분리되었으나 리일환 비서의 경질 가능성과 함께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선전 기능의 강화를 위해 다시 겸직할 가능성도 있다.

당 조직지도부는 체제 전반을 장악·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일이 ‘독수리 발톱과 같은 부서’라고 하였듯이 ‘날카로운 감시’ 기능이 주 기능이다. 조직지도부는 당·정·군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통보제도), 당 생활지도, 인사 및 검열권 행사로 체제 관리의 핵심 부서로 기능한다. 또 조직지도부는 과거 장성택이 맡았던 ‘행정부’ 기능을 통합해 내각·공안·사법기관을 포함해 체제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도 행사한다.

그러나 조용원이 맡고 나서, 경제난·코로나 등으로 체제 전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조직지도부의 역할로 통제보다 조정 기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조용원이 책임진 이후 감시 기능보다 정책 관리, 조정 기능이 핵심 역할이 아닌지 조직지도부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24년에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 조직지도부 내에 ‘지방발전정책총괄과’를 설치하였듯이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 자원난으로 조직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책 검열·통제 기능은 간부부, 규율조사부, 법무부가 측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표 2] 8차 당대회 이후 당 비서국 변동 (필자 정리)

시기	정치국	등용 인물
2021.01 8 차 당대회	비서 7 명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리병철(군수), 정상학(검사),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과학교육)
	부장 혹은 부장급 16 명	김재룡(조직), 오일정(군정지도), 박태덕(규율조사, 신설), 김성남(국제), 허철만(간부), 김형식(법무), 박명순(경공업), 리철만(농업), 리두성, 강순남, 김영철(통전), 김세복, 박정남, 최휘(선전 추정), 김용수, 박영민(로동신문 책임주필) 복한 16 명 발표
	전문부서 20 개	위 16 개 부서와 당비서와 부장을 겸직한 박태성 선전, 리일환 근로단체, 김두일 경제, 최상건 과학교육 4 개 부서를 합치면 총 20 개 부서
2021.02 전원회의	경제비서 ·부장교체	오수용을 당비서 겸 경제부장에 선거 * 김두일 비서 겸 경제부장 한 달 만에 해임(증산목표 낮게 설정한 책임)
2021.06 정치국	과학교육비서경질	최상건 과학교육비서·부장 해임 *"중요 결정 집행 태공" 책임으로 최동명 당과학교육부 제 1 부부장도 해임
2022.06 전원회의	비서교체 3 명	당 비서 겸 검사위원장 정상학 → 김재룡, 당 비서 겸 경제부당 오수용 → 전현철,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박태성
	부장임명 6 명	조용원(비서 겸 조직부장), 조춘룡(당 군수공업부장), 전현철, 리충길(과학교육부장), 리선권(통일선전부장), 한광상(당 경공업부장) 임명
2022.12 전원회의	비서교체	군사담당(군정) 비서(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 리영길
	부장교체 5 명	민방위부장 오일정, 재정경리부장 김용수, 당 역사연구소장 리혜정, 규율조사부장(겸 당검사위 부위원장) 김상건. 선전선동부장 주창일 확인, 김영식을 당 1 부부장에 임명
2023.02 전원회의	부장교체	최동명을 당 부장에(과학교육 부장 추정)
2023.06 전원회의	경제비서 교체	당 비서 겸 경제부장 전현철 → 오수용 * 오수용(1947년생) 경제 비서·부장 3 차례 역임: 2014.5 임명 → 2021.1 해임 → 2021.2 임명 → 2022.6 해임 → 2023.6 임명 → 2023.12 해임
2023.12 전원회의	비서교체 3 명	비서 겸 군정지도부장 박정천, 비서 겸 경제부장 전현철,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리병철은 상무위원직만 보유
	부장임명 5 명	김재룡(당비서 겸 간부부장), 전현철(당비서 겸 경제부장), 주창일(선전선동부장), 김철삼(규율조사부장), 주철규(농업부장)
2024.06 전원회의	부장교체	근로단체 부장 리두성 → 김정순
2024.12 전원회의	비서교체 3 명	당 비서 겸 경제부장 전현철 → 김덕훈, 당 비서 겸 간부부장 김재룡 → 리히용,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최동명,
	부장교체	규율조사부장 김철삼(평북도당 책임비서로) → 김재룡

#### 4. 노동당 핵심 당료 6인 분석

이상의 정치국·비서국 변동을 토대로 북한의 핵심 당료(黨僚)는 누구인지 살펴본다. 중앙당 간부 중에 군사·군수 분야 인물(박정천, 조춘룡)과 과학교육 분야 인물(최동명)을 제외하고 북한의 당 사업을 주도하는 당료 6인방은 조용원, 박태성, 김덕훈, 리일환, 김재룡, 리히용이다. 이들의 경력 사항을 보면 조용원, 박태성, 리일환은 중앙당 출신이다. 리히용, 김재룡은 지방당 출신이고, 김덕훈은 지방공장 지배인 출신으로 중앙 정치무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 6명은 모두 2019년 당 전원회의 및 2021년 당대회를 계기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 또는 위원으로 보선된 ‘정치국 진입 동기’라는 점이 같다.

이들의 관계는 라이벌일까, 공동운명체일까?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설 차원에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이들은 조용원이 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이들의 발탁을 김정은에게 건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용원이 김정은 수행비서직을 마치고 2019년 4월 당조직지도부 1부부장, 2021년 1월 조직지도비서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태성(선전, 과학교육 업무 역임)을 제외한, 김재룡(조직, 규율, 검사, 간부 업무 역임), 김덕훈(경제), 리일환(근로단체, 선전), 리히용(조직, 검사, 간부)도 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재룡, 김덕훈, 리히용은 중앙당 출신이 아닌데도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조용원이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실상 조용원을 ‘보스’로 모시고 그의 당무 장악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중앙당 출신 3인의 관계를 살펴본다. 김정은 집권 초기 수행비서 역할에서 박태성은 조용원의 선임이다. 박태성 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총리는 조용원이 2019년 4월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에 발탁되었을 때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중앙당에서 전출된 경력이 있다. 박태성은 과학교육 업무를 역임한 학자 스타일의 성품 보유자로도 알려졌다. 박태성과 리일환은 앞서 거론한 지방 출신 3인보다 수년 앞서 당 정치국 위원이나 당 부장을 역임한 고참으로서 이들은 당 선전선동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 전력이 있다.<sup>17</sup> 또 조용원과 리일환은 노동당 내 양대 핵심 부서인 조직부서와 선전부서의 책임자로서 경쟁 관계일 수 있으며,

당 선전비서와 선전부장직을 분리한 점에서 조용원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조용원·박태성·리일환의 관계는 경쟁 관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

[표 3] 2025년 1월 기준 북한 정치국 내 당무 주도 6인방

구분	주요 경력 사항
조용원 1957년생 중앙당출신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 수행비서(2014~2020, 박태성 후임 수행), 19.4 정치국 후보위원/조직지도부 1부부장, 21.1 정치국 상무위원/조직비서/군사위원 → 21.9 국무위원 위원 → 22.6 당조직지도부장도 겸직
박태성 1955년생 중앙당출신	12.8 중앙당 부부장, 14.5 평남도당 책임비서, 16.5 정치국 후보위원, 17.10 정치국 위원/당부위원장(과학교육), 19.4 최고인민회의 의장, 21.1 정치국 위원/당비서/선전선동부장 → 22.6 정치국 위원/당비서(과교) → 24.12 정치국 상무위원/내각 총리
리히용 출생연미상 함북도당	함북도당 비서, 17.10 함북도당 위원장, 19.4 정치국 후보위원, 21.1 당중앙검사위 부위원장 → 22년 조직지도부 1부부장 → 23.1 정치국 후보위원 → 24.7 평북도당 책임비서 → 24.12 정치국 위원/당 비서/간부부장
김재룡 1959년생 자강도당	자강도당/평북도당 비서, 15년 자강도당 책임비서, 19.4 정치국 위원/내각 총리, 21.1 정치국 위원/조직지도부장 → 22.6 당비서/검사위원장(조직부장은 조용원에게) → 23.12 당비서/간부부장 → 24.12 당 규율조사부장
김덕훈 1961년생 공장지배인	2001.대안전기공장 지배인, 11년 자강도인민위원장 14년 내각부총리, 19.4 정치국 후보위원, 19.12 정치국 위원/당 부위원장/당부장, 20.8 내각 총리/상무위원 → 21.1 정치국 상무위원 → 24.12 내각 총리 해임/당비서(검경제부장)/정치국 위원
리일환 1960년생, 청년동맹	98년 청년동맹 1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 08년 당선선동부 과장, 14년 당 근로단체부장, 19.12 정치국 위원/당 부위원장/선전선동부장. 21.1 정치국위원/비서/근로단체 부장 → 21.7 선전선동부장(추정) → 22.3/24.4 선전부문일군강습회 보고

\* 자료: 통일부, 『북한 주요 인물정보』(2024) 참고 / \*필자 작성

## 8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조 운용 평가

### 1. 8차 당대회 이후 인사 개편의 특징

북한은 2021년 1월 10일 8차 당대회 6일 회의에 1차 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한 데 이어,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으며 부장을 임명했다. 당 지도부 개편에 이어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의 14기 4차 회의를 소집해 국가지도부도 개편하였다. 8명의 부총리 가운데 6명을 교체하고 내각 47개 부처 상(相)급 가운데 22명을 교체했다. 따라서 전년 8월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김재룡에서 김덕훈으로 교체한 것을 포함하면 내각 지휘부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 이후 상황은 어떤지 살펴본다.

인사개편 주기와 규모는? 당대회 이후 중앙당 인사 개편은 4년간 11차례 매번 전원회의와 3차례 정치국 회의에서 단행되었다.<sup>18</sup> 매년 기준 당 중앙위원은 30~50명을 교체했고, 정치국 구성원들은 6~16명, 당비서는 3~4명, 부장은 2~11(2022년에 예외적으로 11명 교체)명 교체했다. 따라서 매년 ‘찾은, 대규모는 아닌 중폭의 인사 교체 단행’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사 교체가 큰 시기는 2022년 6월 및 12월 전원회의와 2024년 12월 전원회의로 대략 2년 주기로 쇄신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분야의 교체가 빈번했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급 변동을 놓고 볼 때 리병철·박정천의 진퇴, 군 지휘부와 경제 비서의 교체가 잦았다. 군부 인물의 교체는 명령 이행 소홀을 이유로, 경제 비서는 경제관리 실패 책임으로 교체가 잦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부장(후보위원급) 중에서는 핵심 부서인 선전·간부·규율조사부장의 교체가 빈번했는데 귀책 사유보다는 중앙당의 효율적 관리 목적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재룡의 경우는 조직부장, 규율조사부장, 간부부장, 중앙검사위원장을 번갈아 맡아 조용원이 당 장악을 위한 와일드카드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중앙당 외부에서의 진입도 있었는지? 한마디로 핵심 직위는 ‘극히 폐쇄적’이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부장 직위는 ‘폐쇄적’이라고 평가된다. 정치국 위원은 후보위원에서, 당비서는 부장에서 승진이 일반적이고, 일부 인물들이 핵심 직위 진퇴를 반복했다. 지방당 책임 비서와 중앙당 간부직과의 순환도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그 폐쇄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당 부장과 후보위원급은 중앙당 밖의 기관에 다소 열려있으나 내각 전문 관료나 공안기관 등에 제한적이다. 공산당의 인사원칙이 당성을 기준으로 한 충원(일주성, monolithic)이 기본이나 북한 당료 집단의 폐쇄성은 김정은의 ‘낮가림’마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8차 당대회 이후 인사개편의 특징을 평가한다. 첫째, 조용원을 중심으로 한 신규 엘리트 그룹이 지속적으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때 중앙당을 신규 인물로 대폭 물갈이하면서 이들을 핵심 보직에 얹혀 자신의 친정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당정 지도부를 구성했다. 특징은 전통적인 중앙당 인맥의 퇴출을 도모하면서, 지방당 출신 간부의 중앙 진출과 신규 중앙당 간부와와의 접목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한 점으로 요약된다. 앞에서 언급한 핵심 당료 6인방이 그 대표적 인물군이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김정은보다는 조용원이 발탁한 셈이다.

김정은이 조용원을 전적으로 신임하는 가운데 그의 건의에 따라 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방 간부들을 발탁해 조용원과 팀을 구성해 중앙당을 이끌게 했다. 당대회 이후에도 당지도부의 폐쇄성은 유지되었다. 당료만 놓고 볼 때 당대회 이후에도 정치국 위원이나 비서급에서는 폐쇄적으로 인사 교체가 이뤄져 조용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당 지도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도그룹 내부에서 보직을 바꿔가며 장악력을 강화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당 지도부의 폐쇄성은 비서국과 정치국 구성원의 직위를 겸직시키면서 정책 결정기관인 정치국에 외부 조직 책임자의 충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전문성보다는 충실성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들을 충원했다. 김정은은 8차 당 대회 ‘결론’에서 당 간부들을 “충실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물들 중심으로 등용했다고 했다. 그

는 ‘실무능력’보다 ‘충실성’을 우선 거론했다. 8차 당대회 때 박봉주 前총리, 김일철 국가계획위원장 등 다소 개혁적인 경제 간부들을 ‘주관주의’ 오류와 실적 부진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sup>19</sup>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용인술을 보면 내각 총리의 전문적 경제관리를 존중하거나 군수공업 부문 간부들을 능력에 따라 발탁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의 충원 없이 초기의 지도그룹을 유지한 점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핵심 발탁 요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책 개발보다는 조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 개편을 이어갔다. 8차 당대회 전후로 중앙당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었다. 2020년 당 군정지도부와 당 법무부를 신설해 군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2021년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 규율조사부를 신설해 간부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예고했다. 위 부서 신설은 통제기구의 독주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하는 효과도 노렸다. 예컨대, 당조직지도부와 당규율조사부, 당법무부와 검찰공안조직, 군정지도부와 총정치국 간의 상호 견제 효과도 노렸겠지만, 방점은 중복적 통제에 있다고 본다.

넷째, 핵심 권력층 인물들 간의 직위 경쟁과 회전문 인사가 빈번했다. 인사관리에서 리병철·박정천·리영길·오수용·김영철 등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었다. 친소 관계에 따른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이 작용한 결과였다. 회전문 인사는 김정은이 보상보다는 채찍 중심으로 지배연합을 관리한 결과 지배연합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결과도 작용했다. 회전문 인사는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발휘했다. 직위 경쟁이 빈번한 자리로는 선전부장, 간부부장, 규율조사부장을 들 수 있다. 집권 초기 공포통치를 했던 김정은은 권력이 안정되어 가면서 은퇴 이후도 ‘배려’해주는 ‘은총’을 베풀었다. 박봉주·황병서에 이어, 김영철, 오수용, 리병철이 고문이 되었다.

김정은의 용인술은 특정 전문가를 자주 접촉하다가 친밀해지면 그의 경력과 무관하게 등용하는 경향이 있다. 군수 전문가 리만건을 조직비서에 등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리병철, 박정천 등은 자주 접촉한 인물들을 측근으로 등용한 사례이다. 리병철은 핵미사일 개발, 군수

산업 진흥 과정에서,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은 빈번한 포병 사격대회 과정에서 김정은과 친분을 쌓았다. 김정은은 아부하지 않은 부하들에게 쉽게 싫증을 느껴 교체가 잦다. 전술한 인물들은 해임·등용을 반복했다. 특히 박정천은 포병사령관 이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계급 혹은 직위 진퇴가 기록적이다. 반면 김두일 당경제비서, 사회안전상 김정호 등 김정은과 친분관계가 적은 간부들은 작은 실수에도 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했다.

## 2. 8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조 운영의 특징

다음은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용인술과 특징적 인사 개편이 권력구조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첫째, 당 중심의 체제 관리가 정착되었다. 당 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소집되고 의제도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 정치국 회의도 활성화되고 정치국에 ‘최근 군사 정세에 대한 총참모부의 보고’도 이뤄진다(2024.5.24.). 당 정치국에 내각·군부 간부의 일정한 참여도 보장(직위 중복)해 일원적 통치를 도모하고 있다. 김정일 때의 선군정치에서 일종의 선당정치이다.

둘째, 당의 조정·통제 기능이 발달했다. 8차 당대회 이래 중앙당의 조직·인사 개편도 조정·통제 기능 강화를 도모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당 전원회의에서도 간부들의 규율 확립 문제를 수시로 의제로 상정해 통제력 강화를 도모했다. 예를 들자면 “인민경제계획 수행 규율 확립 문제”(2023.2), “당 규율 대책”(2023.6), “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 문제”(2023.12), “일꾼들의 사업 방법·작풍 개선 문제” 및 “중요 사업규율 강화 문제”(2024.6) 논의가 있었다. 그만큼 정책 추진 자원 부족에 따른 갈등이 컸음을 의미한다.

통제 기능 강화로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군 전반에 중앙당의 통제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내각 총리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 철리임을 확신한다”라고 했고, 군이나 특수기관의 특권 경제도 일원적 경제관리에 협조해 ‘단위 특수화’ 현상도 줄어들었다. 외양상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가 구현되는 모습이고, 조용

원은 궁색한 살림살이나마 억지로 꾸려갈 수 있었다. 조용원의 조직지도부가 앞에서 끌고 김재룡의 규율조사부, 리히용의 간부부가 뒤에서 떠민 결과다.

중앙당의 효율적 운용은 조용원 등용 덕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의 신임 외에 특별한 권력 기반이 없는 조용원으로서는 일거에 출세는 했으나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생존술을 개발해야 했고 8차 당대회 이후 많은 중앙당 인사 개편은 ‘당 중앙’이 유효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부하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 취한 조치였다. 조용원을 핵심으로 한 신진 엘리트 중심의 당 관리로 정책적 성과는 차지하더라도 경제난이 극심해지고 방역 문제 불거진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김정은은 조용원 보좌 덕분에 핵심사업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다.

셋째, 김정은이 수령제 복원에 성공해 그의 권위 구조는 격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정은의 10여 년 집권 과정은 수령 독재 복원 과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7차 당대회까지는 공포정치와 잦은 숙청으로 권력 핵심부가 요동을 쳤으나, 7차 당대회 이후 지배 연합은 안정되어 갔고, 8차 당대회 이후에 권력층은 김정은 가신 중심으로 총원되어 김정은 유일 지배가 가능해졌다. 권력 기반이 안정되자 김정은은 체제 관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원격 통제가 가능해졌다. 대체로 군부는 김정은이 직접 통제하고, 당은 조용원이 관리하면서 내각도 통제하고, 의례적인 역할을 할 뿐 권력 핵심과는 거리가 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룡해가 알아서 관리하는 형태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이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아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중하거나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한때 공개 활동을 대폭 줄이고 대신 당 회의체를 활용하거나, 분야별로 측근에 일선 관리를 맡기거나, 다른 상무위원에게 정치국상무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거꾸로 김정은 친정(親政)체제가 다소 이완되는 모습이다.

넷째, 정권의 외양적 견고성과는 달리 정책 갈등이 심해졌다. 통제 기능 강화의 결과 절반

의 실패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다. 통제 강화로 문제 소지 차단에 주력한 결과 정책 비전 제시,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부여, 정책 애로 요인 해소 등 정책 성과 진작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간부들의 적극적인 정책 열의 도모에 실패했다. 김정은이 2024년 ‘10.10 담화’에서 “일꾼들이 당정책의 진수도 모르고 취미 본위로 사업하고, 당정책을 비속화하거나 왜곡 집행하는 결함들이 발로”된다면서 “책무 수행에 빠심을 들이지 않는 무책임한 일본새”를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과업은 아름답거나 준비된 일꾼이 적다”라고 해 대폭적인 간부 물갈이를 예고했다. ‘간부 혁명화’와 ‘당 규율 확립’이 간부 정책의 주된 과제로 대두되었다.

간부들의 행태상 문제점은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에서 보신주의·패배주의, 정책에 대한 냉소에 옮겨갔다. 북한 지도부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사업 열의(‘혁명 열의’)를 고취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강습회를 조직하고, 정책 실적을 서열화 평가했다. 2021년 6월과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중앙당 간부 생활총화’를 통해, 2023년부터는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보고’를 통해 간부들의 규율 확립(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당 결정 집행 태공(태만)”에 따른 징계 조치(2021.6 당 정치국 회의, 2024.7 비상 당 정치국 회의)도 빈번했다.

다섯째, 권력구조의 경직성 심화로 체제의 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김정은 유일 지배 구축에는 성공했으나 김정은의 독단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빈번한 인사 개편과 통제로 군부의 자율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내각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확신한다”라고 할 정도로 굴종적이며, 당내에서도 상호 감시 기제의 활성화로 탄력적·창의적 정책 운용의 여지는 배제되었다. 결국 통제 위주의 폐쇄적·강압적 권력구조 운용은 단기간 위기관리에는 효율적일 수 있어도 점차 그 모순의 누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자충수로 작용했다.

### 3. 9차 당대회 인사개편 전망

북한은 2026년에 예정된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중간층 간부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인사개편이 예상된다. 김정은이 2024년부터 간부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는 간부들 자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자주 표출한 점,<sup>20</sup> 간부 ‘정간화’(정예화) 강조, 입당·등용·재교육 등 인사 정책 전반 혁신을 주문한 점이 근거이다.

북한의 권력층 재편 준비는 진행형이다. 2024년 12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경력의 리히용의 당비서 겸 간부부장 등용은 인사개편 준비 목적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5년 1월 말 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지방당 간부들의 ‘인민 권익 침해’ 사건 적발을 계기로 시군 지도원급 이상 간부들에게 ‘3년간의 부정부패 행적을 기록한 자아비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1</sup> ‘자아비판서’ 제출 요구도 인사자료 조사 차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간부 재평가 자료 작성, 시·군·도 당 대표자 선출에 이어 9차 당대회에서 지도부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지도부 개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체된 데 따라, 8차 당대회 때 방식으로 당대회 직후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사개편 방향은, 김정은이 정책 부진의 이유로 전문성 문제보다는 여건이나 탓하고 “빠심을 들이지 않는” 패배주의에 있다고 보면서 “당 중앙의 의도”, “당정책의 진수”를 잘 파악하는 인물을 요구하는 점에서 당성·충실성을 기준으로 한 총원이 예상된다. 한편 고위 간부층은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편이 예상된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효율적으로 당무를 총괄하며 김정은을 보좌한 점에서 현 지도부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부문적인 개편으로는 군부 인물 등용 및 조용원 견제 당료의 등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김정은의 군수산업, 무기개발 및 군사훈련에 관한 관심 증대, 조용원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내각 총리 등용 및 조용원의 근신 처분 및 이후 그의 활동이 위축된 점을 들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소환된 김여정이 5년 만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정은 당시 미상 과오를 이유로 혹은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되고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강등되었다.<sup>22</sup> 김여정의 ‘담화 정치’ 등 그간의 ‘업적’으로 볼 때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당비서는 아닐지라도, 정치국 후보위원·선전선동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부 인물 등용, 조용원 견제 인물 총원 확대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의 당 중심 체제도 김정일식의 측근정치, 선군정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중앙당 중심의 무난한 내정 관리, 자력 경제성장의 한계 경험,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 증대로 김정은이 군사 편향 리더십이 굳어지고 리모트 콘트롤 방식으로 권력을 관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그 경우 선당 정치의 기반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김정은이 내정을 측근들에 맡기고 군사·군수에 집중하는 통치 행태로 김정일식 선군 독재로 변질되면서 권력층 내 잠재되었던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앞서 지적한 북한 노동당 인사개편의 의미를 종합할 때,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의 당 중심 체제는 김정일식 측근정치, 선군정치로 변질되면서 권력층 균열은 가속화되고 잠재되었던 갈등이 분출할 수도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김정은의 군사모험주의를 견제하고 비핵화를 견인하며, 수령 독재를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권위 구조는 선대 이상으로 격상되었고, 군사모험주의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재래식무기 현대화를 보태려 한다.

통상 당 창건 5, 10주기를 앞두고 북한 지도자들은 그때만큼이라도 친(親)인민 시책에 집중하여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노력을 해왔다. 김정은도 과거에는 포병 사격대회,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분주하다가도 당 창건 행사를 앞두고는 보육원이나 화장품 공장, 메기 공장을 지도하면서 ‘애민 정치’를 표방했다. 그러나 올해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는 예전과 달라졌다. 김정은이 1~2월에 ‘건설사업 예찬론’과 함께 ‘위민헌신’을 표방하기는 했으나, 3월 이후 재래

식 무기 성능 개량과 ‘현대전 요구에 부응한 군사훈련’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인 행보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앞으로 있게 될 혁명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론한 점(5.14~15, 훈련일꾼대회 보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 신정부가 들어선 직후 8월 ‘을지 FS’를 주목할 것이다. 여전히 강화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지 주시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 전략 자산 전개 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한미가 맞대응하자 북한은 다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만 하는 핵 개발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북한은 장차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가 재개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 이간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이 놓은 한미동맹 이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이 북·러동맹과 대러 파병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시간이 마냥 북한에게만 있지는 않다. 올해 당 창건 80돌 행사, 2026년 9차 당대회 기간에는 동원 체제 강화로 북한의 결속력이 유지될 것이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러 밀착, 북·중·러 연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브콜도 2027년쯤이면 시효를 다할 수 있다. 한국은 정국 혼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강성 권위주의 및 군사모험주의 노선 변화,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저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1 북한의 국가지도부 개편은 8차 당대회와 거의 동시에 소집된 2021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부총리 상 당수와 장관급 절반가량을 교체한 이래, 상(相)급 이하를 제외하면, 같은 해 9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무위원 일부 교체, 2024년 12월 내각 총리와 일부 부총리 교체가 전부이다. 따라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당·정·군 인사개편에서는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등 중앙당 지도부 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중앙당 어느 기구에서 어느 인물의 부침이 두드러졌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안을 둔다. 8차 당대회 이후 중앙당 권력 엘리트의 부침 분석을 통해 북한 핵심부 내 권력 갈등 여부를 점검하고, 김정은의 용인술 및 권력구조 운용의 특징을 평가한다. 다만, 북한처럼 폐쇄된 체제의 권력층 인사개편 분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공개한 인사개편 ‘공보’를 전부 조사했으나 북한이 밝힌 내용이 모호하거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사 배경 평가는 더욱 그렇다. 출신 배경, 경력 사항, 김정은은 수행 활동 등을 고려해 인사개편 배경을 판단하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은 점도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북한의 8차 당대회 폐막 직후 당 간부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관(2021.1.12) 보도에서 김정은,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순서로 발표해, 조용원의 당 서열은 3위로 다시 올라갔다. 한편 박봉주 전 총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중앙당 무대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sup>3</sup> 리병철은 2020년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2021년 1월에 당비서에 선출되었다가 2021년 6월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책에서 소환되었다. 2022년 4.25 열병식에서 상무위원 겸 비서로 복귀했음이 확인되었고(박정천과 리병철을 동시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칭), 2022년 6월에는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2025년 3월 북한 매체가 리병철을 ‘당중앙위 군수담당총고문’으로 호칭해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sup>4</sup> 박정천 총참모장은 2021.6.29 정치국 회의에서 리병철과 함께 ‘중대 지시 태공(태만)’으로 김정은의 질책을 받았으나 두 달여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 선출’되었고(9.7 당 정치국 공보), 2022년 4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원수)에 등용되었다. 2022년 12월 ‘훈련 소홀, 지휘 통솔 미흡’을 이유(추정)로 당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상무위원, 비서에서 소환되었으며(2023.1.1. 당 전원회의의 공보), 2023년 8월 ‘당 군정 지도부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 다시 당 군정비서로 승진했다

<sup>5</sup> 2025.3.27.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3.25~26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소’ 지도를 보도하면서 리병철을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으로 호칭했다.

<sup>6</sup> 8차 당대회 이후 두 차례 정치국 위원 규모 조정이 있었다. 2023년 하반기에 8차 당대회 대비 정치국 위원 감소(14→8명) 및 후보위원 증가(11→17명)가 있었고, 2025년 상반기 시점에 위원 증가(8→12명) 및 후보위원 감소(17→13명)가 있었다. 정치국 위원은 당정책 의결권자이자 분야별로 당·정·군 정책 집행을 책임진 북한의 실질적인 핵심 엘리트들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역할이 핵심이며, 정치국 직위별 규모 변동도 이들의 역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22년은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한 시기다. 그해 방역 대책 협의를 위한 정치국 협의회 소집이 빈번했지만, 여타 당무는 위축이 불가피했다. 그 시점에는 정치국 위원들을 정예화(8명)했다가 다시 당 사업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 위원 숫자를 늘린 것(12명)으로 판단된다.

<sup>7</sup> 통일부 ‘권력기구도’는 2024년 12월 당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정치국 위원으로 박정천, 리히용, 리일환, 조춘룡, 김재룡, 김덕훈, 오수용, 노광철, 박정근, 정경택, 리영길, 최선희, 김정관, 최동명(14명)을 적시했다(5.15 검색). 필자가 볼 때 오수용(경제 고문 추정)은 탈락이 확실시되고, 김재룡은 불확실 하나 당비서에서 소환되고 부장직만을 유지한 점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태형철)도 일

시적으로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2021.6~2022.6)했으나 다시 소환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준다.

<sup>8</sup> 구체적으로 정치국 위원변동을 살펴보자. 우선 '위원'직을 장기 보임 인물이다. 8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인물 중 2025년 5월 현재도 위원인 인물은 박태성(위원→상무위원)·김덕훈(상무위원→위원)·리일환 당료(黨僚) 3인, 박정천·정경택·리영길·김정관 군 인물 4인이다. 물론 줄곧 상무위원직을 유지한 조용원은 별도로 한다. 그중 중간에도 부침이 없었던 인물은 김덕훈·정경택뿐이며, 박태성·리영길·김정관은 부침이 있었고, 특히 박정천은 극심했다. 비교적 장기간 '위원'직을 유지하다가 소환된 인물은 김재룡·오수용·전현철·김영철이다. 그중 김재룡은 현직 당 규율조사부장이자 후보위원으로 정치국에서 탈락하지는 않았다.

<sup>9</sup> 북한은 2022.6.27 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개편"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4년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당 기구 개편'을 토의했으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sup>10</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01.10.

<sup>11</sup> 8차 당대회 인사에서 오일정은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었으나 정치국원으로 직행했다. 박태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신설된 당 규율조사부장에 등용되었다.

<sup>12</sup> 북한이 2019.4 당 조직비서에 등용된 리만건이 2020.2.29 당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일성고급당학교 부정부패 사건 책임을 물어 농업담당 박태덕 당 부위원장과 함께 "현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조직담당 부위원장 및 조직부장에서의 해임이 확인되었다. 2020년 8월 9일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봉쇄된 개성에 '리만건 당 정치국 위원 겸 당 제1부부장'이 특별지원물자를 전달했다고 보도하여 리만건이 부장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정치국 위원과 제1부부장직은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조직지도부 1부부장은 리만건·조용원·김조국(군사담당)·김여정 4인 체제였다.

<sup>13</sup> 8차 당대회 이전 당 경제비서는 2012.4 광범기 → 2014.4 오수용 → 2019.4 박봉주로 교체되었다.

<sup>14</sup> 리일환은 당비서 겸 근로단체 부장 혹은 선전선동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5년 1월 2일 이후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서 사라졌고, 선전선동부장(주창일)이나 근로단체부장(김정순)을 다른 인물로 임명한 점에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sup>15</sup> 통일부 '권력기구도'를 보면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전문부서에서 제외했고, 문화예술부와 경제정책실은 전문부서에 존치시켰으나 부장(급)은 미상으로 비워놓았다(2025.5.15. 검색).

<sup>16</sup> 당비서 겸 경제부장은 4년 사이에 6명이 역임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자원난으로 경제정책 관리가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부족한 경제가 심화되면서 '내각책임제·중심제'는 공허해졌고, 중앙당의 경제관리 주도는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2023년 말 이후 공개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자원·자재 공급체계의 난맥상으로 생산활동의 무정부성은 극심해졌다. 당 경제비서의 잦은 교체는 그 희생물이다. 그간 경제정책 집행 책임을 진 김덕훈이 김정은으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철리'라고 하면서 당의 정책에 절대복종해 4년간 내각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그가 당 경제 비서로 옮겼으니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덕훈의 경제비서 보임은 9차 당대회 준비에 참여시키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sup>17</sup> 근년에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자리는 리일환(근로단체 부장도 역임) → 박태성(과학교육부장도 역임) → 리일환 → 주창일 순으로 맡았다.

<sup>18</sup>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선 사령관 임명, 군사칭호 수여, 중앙군사위 직제 2개로 증설 등이 있었고 군사위원 보선이나 국방상 교체는 전원회의(국방상 교체는 최고인민회의에서도)에서 이뤄졌다. 비서국 회의에서도 비서국 직제 조정 수준의 결정만을 했다. 정치국 회의 3회 인사조치는 2회(2021.6, 2024.7)는 징계였고 1회

---

(2021.9.7)는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 선출'이었다.

<sup>19</sup> 그 대신 김두일(당 경제부장 → 2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 달 만에 오수용으로 교체),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내각 부총리), 전현철(경제정책실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실무자들을 기용했는데 전문성보다 당성이 강한 인물들로 충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sup>20</sup> 김정은은 2024년 '10.10 담화'에서 "일꾼들이 당정책의 진수도 모르고 취미 본위로 사업하고, 당정책을 비속 화하거나 왜곡 집행하는 결함들이 발로"된다면서 "책무 수행에 빠심을 들이지 않는 무책임한 일본새"를 비판하고 "당면한 과업은 아름답거나 준비된 일군이 적다"며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sup>21</sup> 『Daily NK』, 2025.02.12.

<sup>22</sup> 북한은 2021년 3월 30일자 김여정의 대남 담화(문 대통령의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지적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정면 비난)를 발표하면서 김여정의 직책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1년 1월 당대회 직후 부부장으로 강등되면서 부서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021.3.30.